

# 201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장

## I. 거시경제지표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미 8개국	라틴 아메리카
GDP		1.9	0.9	5.6	4.0	3.9	6.3	5.6	4.7	2.7
1인당 GDP	% (연증가율)	1.0	0.0	4.6	2.6	2.7	5.1	4.0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10.0	5.4	3.0	3.2	4.3	3.7	21.1	4.1	6.0
GDP	10억 달러	475.5	2,254.4	268.3	369.6	1,185.7	199.6	383.2	245.8	5,847.7
GDP (구매력기준)		949.8	2280.0	320.2	415.1	1820.9	323.3	404.5	430.5	7,555.4
1인당 GDP	달러	11,565	11,365	15,398	7,773	10,209	6,713	12,819	4,612	9,704
1인당 GDP (구매력기준)		23,100	11,494	18,372	8,729	15,656	10,872	13,534	8,077	11,790
실업률	%	7.2	5.5	6.4	11.2	5.0	6.9	7.8	6.2	7.4
총외채 (GDP 대비)		24.2	19.0	39.0	22.3	23.2	25.7	19.8	37.1	21.7
수출		81.4	242.6	78.3	58.8	371.6	45.6	97.5	68.5	1,121.3
수입		65.7	223.1	74.9	58.6	371.3	41.1	59.3	105.1	1,069.7
무역수지	10억 달러	15.8	19.4	3.4	0.2	0.4	4.5	38.2	-36.6	51.6
외환보유고		45.3	377.8	38.9	36.4	165.6	62.2	25.9	24.7	779.9
외국인직접투자 (FDI)		12.6	65.3	30.3	15.8	12.7	12.2	3.2	12.7	173.4
경상수지	% (GDP 대비)	0.5	-2.4	-3.5	-3.1	-0.5	-3.6	3.7	-6.1	-1.6
재정수지		-2.6	-2.5	3.2	-2.1	-2.7	2.0	-11.4	-3.0	-2.8

주1 | 중미 8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주2 | 2012년 나라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자료 | 총외채는 EIU, 외환보유고, 정부부채, FDI는 CEPAL,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 II. 실물경제지표

### 1. GDP

::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하락세 기록

| 분기별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11년 1분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2012년 들어서는 그 하락 폭이 더욱 큼.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2012년 2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2011				20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르헨티나	9.3	9.3	9.5	7.4	4.9	-0.1	0.8	2.1
브라질	4.2	3.3	2.1	1.4	0.8	0.5	0.9	1.4
칠레	9.8	5.8	3.2	5.0	5.1	5.7	5.8	5.7
콜롬비아	5.7	6.4	7.9	6.6	5.3	5.0	2.7	3.1
멕시코	4.3	2.9	4.4	3.9	4.9	4.5	3.2	3.2
페루	8.8	6.9	6.7	5.5	6.0	6.4	6.8	5.9
베네수엘라	4.8	2.6	4.4	4.9	5.9	5.6	5.5	5.5
중미8개국	4.5	5.3	5.2	5.0	5.4	4.3	4.3	4.7
라틴아메리카	4.9	4.0	4.0	3.3	3.0	2.5	2.5	2.7

주 | 중미 8개국 경제 성장률은 8개국 단순평균에 기초. 이하 동일.  
자료 | Global Insight.

:: 2012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유럽 금융위기 심화와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감소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장세 급락으로 2.7% 성장에 그침.

| 지역별로는 남미 경제권보다는 북중미 경제권의 성장률이 높은 북고남저(北高南低) 양상을 보임.

| 나라별로는 페루가 6.3%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으며, 칠레(5.6%), 베네수엘라(5.6%), 콜롬비아(4.0%), 멕시코(3.95)가 그 뒤를 이음.

| 그에 반해 남미 경제의 양대 성장 엔진인 브라질(0.9%)과 아르헨티나(1.9%) 경제의 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크게 하회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6.8	0.9	9.2	8.9	1.9
브라질	5.2	-0.3	7.5	2.7	0.9
칠레	3.3	-1.0	5.8	5.9	5.6
콜롬비아	3.5	1.7	4.0	6.6	4.0
멕시코	1.2	-6.0	5.3	3.9	3.9
페루	9.8	0.9	8.8	6.9	6.3
베네수엘라	5.3	-3.2	-1.5	4.2	5.6
중미8개국	4.3	-0.1	4.3	4.6	4.7
라틴아메리카	4.0	-1.6	5.8	4.1	2.7

자료 | Global Insight.

2. 산업 생산

:: 분기별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산업 생산은 2012년 1분기를 기점으로 큰 폭의 성장 둔화세로 반전

| 특히 브라질의 산업 생산은 2011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 2012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주요국의 분기별 산업 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2011				20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르헨티나	9.2	8.5	5.7	3.4	2.4	-3.3	-2.5	-0.9
브라질	2.8	0.6	0.2	-1.9	-3.2	-4.4	-2.4	-0.4
칠레	15.5	7.2	6.2	3.9	3.2	3.4	0.2	2.2
콜롬비아	5.6	3.4	6.3	4.0	2.0	0.2	-0.2	-1.8
멕시코	5.2	3.1	3.8	3.8	4.9	4.1	3.6	1.8
페루	12.3	6.0	3.8	1.0	-0.5	0.5	4.1	2.9
베네수엘라	6.2	-1.3	0.5	2.1	2.5	2.9	3.9	2.4
중미8개국	3.4	5.5	5.6	6.5	6.5	5.3	4.4	4.0
라틴아메리카	5.1	2.5	2.4	0.9	0.1	-0.9	0.2	0.6

자료 | Global Insight.

:: 2012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산업 생산은 2011년보다 크게 낮은 0.1% 증가에 그침.

| 나라별로는 브라질(-2.6%), 아르헨티나(-1.2%), 콜롬비아(0%) 등에서 산업 생산이 감소 내지 정체를 보임.

| 그에 반해 멕시코(3.6%), 중미 8개국(5%)은 미국 경제의 성장 회복에 따른 제조품 수출 증가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높은 산업 생산 증가 기록

### 주요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5.0	0.1	9.7	6.5	-1.2
브라질	3.1	-7.4	10.5	0.4	-2.6
칠레	0.2	-6.7	3.2	8.0	2.3
콜롬비아	-3.1	-5.0	4.0	4.8	0.0
멕시코	-0.1	-7.7	6.1	4.0	3.6
페루	9.1	-7.2	13.6	5.6	1.8
베네수엘라	1.4	-11.9	-2.5	1.8	2.9
중미8개국	2.3	-3.2	5.7	5.2	5.0
라틴아메리카	1.9	-6.9	7.5	2.6	0.1

자료 | Global Insight.

### 3. 민간 소비

:: 그간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소비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

| 2012년 들어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데 반해,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높은 소비 증가세 기록

주요국의 분기별 민간 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2011				20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르헨티나	10.7	12.0	11.5	8.5	6.7	4.4	2.5	4.2
브라질	5.9	5.8	2.9	2.1	2.4	2.4	3.6	3.9
칠레	13.3	9.3	7.6	5.8	5.1	5.7	6.0	7.4
콜롬비아	5.3	7.0	6.1	5.2	5.9	3.6	3.9	3.9
멕시코	4.4	3.6	5.1	4.3	4.2	3.5	2.2	3.7
페루	6.3	6.5	6.4	6.3	6.0	5.8	5.8	5.7
베네수엘라	3.6	2.6	4.4	5.3	5.9	7.2	7.8	7.0
중미8개국	4.3	4.2	3.3	3.1	3.2	2.6	2.9	3.5
라틴아메리카	5.9	5.5	4.9	4.0	4.0	3.5	3.4	4.2

자료 | Global Insight.

:: 2012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3.8%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나라별로는 2012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힘입어 베네수엘라가 가장 높은 성장률(7%) 기록

| 이 밖에 칠레(6.1%), 페루(5.8%) 등도 높은 소비 증가세 기록

| 그에 반해 브라질(3.1%), 멕시코(3.6%) 등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낮은 소비 증가율 기록

주요국의 민간 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6.5	0.4	9.0	10.7	4.4
브라질	5.6	4.5	6.9	4.1	3.1
칠레	5.2	-0.8	10.8	8.9	6.1
콜롬비아	3.5	0.6	5.0	5.9	4.3
멕시코	1.7	-7.2	5.0	4.4	3.6
페루	8.7	2.4	6.0	6.4	5.8
베네수엘라	6.3	-2.9	-1.9	4.0	7.0
중미8개국	2.4	-0.5	7.2	4.2	3.9
라틴아메리카	4.4	-0.3	6.0	5.0	3.8

자료 | Global Insight.

## 4. 투자

### 가. 투자 증가율

::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는 2011년보다 증가세가 주춤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23.3%), 페루(14.9%), 칠레(12.3%), 멕시코(8.2%) 순으로 높은 투자 증가 기록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4.8%), 브라질(-4.0%)에서는 산업 생산 하락을 반영해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주요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9.1	-10.2	21.3	16.6	-4.8
브라질	13.6	-6.7	21.3	4.7	-4.0
칠레	17.9	-12.1	12.2	14.7	12.3
콜롬비아	9.9	-1.3	4.9	18.7	6.0
멕시코	5.5	-11.8	0.4	8.1	8.2
페루	27.1	-9.2	23.2	5.1	14.9
베네수엘라	2.4	-8.3	-6.3	4.4	23.3
중미8개국	9.9	-16.2	5.8	12.2	10.4
라틴아메리카	9.8	-8.6	11.6	8.2	3.3

자료 | Global Insight.

### 나. 외국인직접투자(FDI)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음.

| 그 결과 2012년 대라틴아메리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73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나라별로는 브라질(653억 달러), 칠레(303억 달러), 콜롬비아(158억 달러), 멕시코(126억 달러) 순으로 많은 FDI를 유치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9,726	4,017	7,848	9,882	12,551
브라질	45,058	25,949	48,506	66,660	65,272
칠레	15,518	12,887	15,373	22,931	30,323
콜롬비아	10,596	7,137	6,758	13,438	15,823
멕시코	27,853	16,561	21,372	21,504	12,659
페루	6,924	6,431	8,455	8,233	12,240
베네수엘라	1,741	-2,169	1,849	3,778	3,216
중미8개국	10,819	6,793	8,224	10,679	12,681
라틴아메리카	138,698	82,948	124,368	165,815	173,361

자료 | Global Insight.

다. 투자율

:: 지속적인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율(GDP 대비)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22.9%를 기록

| 나라별로는 페루가 32.2%로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콜롬비아(27.9%), 칠레(27.7%) 등이 이음.

| 그에 반해 브라질(19.8%)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낮은 투자 수준을 기록

주요국의 투자율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25.0	22.2	24.7	26.4	24.0
브라질	19.5	18.3	20.6	21.0	19.8
칠레	25.4	21.7	24.5	27.0	27.7
콜롬비아	24.7	24.2	25.1	26.6	27.9
멕시코	22.8	21.5	21.7	22.6	23.5
페루	27.5	25.0	29.0	29.8	32.2
베네수엘라	25.3	24.0	24.2	24.2	26.9
라틴아메리카	22.1	20.5	21.9	22.7	22.9

자료 | CEPAL.

## 5.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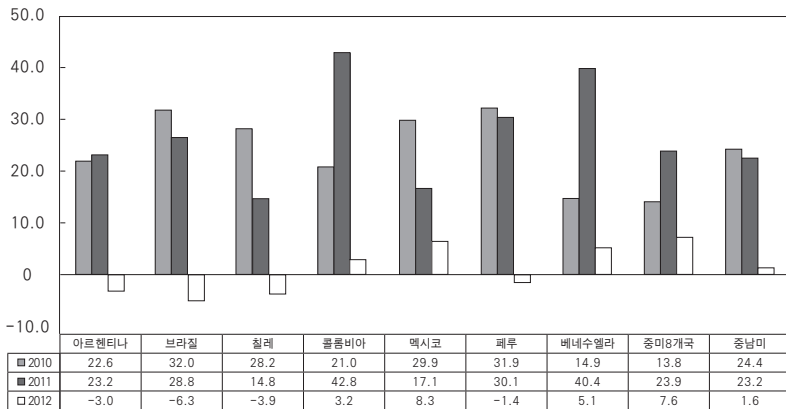
::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2012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침.

| 나라별로는 브라질(-5.3%), 칠레(-3.9%), 아르헨티나(-3.0%), 페루(-1.4%) 순으로 수출 하락세 기록

| 그에 반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미 8개국(7.5%), 멕시코(6.3%)는 높은 수출 증가세 기록

###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 Global Insight.

:: 수출 증가세 둔화로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은 2011년보다 170억 달러 증가한 1조 1,213억 달러에 그침.

| 나라별로는 멕시코가 3,716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브라질(2,426억 달러), 베네수엘라(975억 달러), 아르헨티나(814억 달러), 칠레(783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70.0	55.7	68.2	84.0	81.4
브라질	197.9	153.0	201.9	256.0	242.6
칠레	64.5	55.5	71.1	81.5	78.3
콜롬비아	36.7	33.0	39.9	57.0	58.8
멕시코	291.3	229.7	298.5	349.5	371.6
페루	31.0	27.0	35.6	46.3	45.6
베네수엘라	94.0	57.5	66.0	92.8	97.5
중미8개국	48.5	45.2	51.4	63.7	68.5
라틴아메리카	918.4	720.8	896.6	1,104.3	1,121.3

자료 | Global Insight.

### 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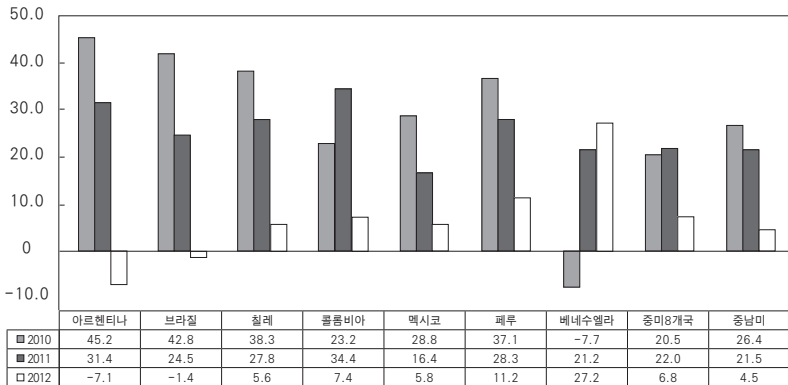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은 4.5% 증가에 그침.

| 나라별로는 베네수엘라(27.2%), 페루(11.2%), 콜롬비아(7.4%), 중미 8개국(6.85%) 순으로 높은 수입 증가 기록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7.1%), 브라질(-1.4%)의 수입은 하락세로 전환

### 주요국의 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를 반영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1조 697억 달러 기록

| 나라별로는 멕시코가 3,713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231억 달러), 칠레(749억 달러), 아르헨티나(657억 달러), 베네수엘라(593억 달러) 등이 이음.

####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54.5	37.1	53.8	70.7	65.7
브라질	173.1	127.7	181.8	226.2	223.1
칠레	58.4	40.1	55.5	70.9	74.9
콜롬비아	39.7	33.0	40.6	54.6	58.6
멕시코	308.6	234.4	301.5	351.0	371.3
페루	28.4	21.0	28.8	37.0	41.1
베네수엘라	51.4	41.7	38.5	46.7	59.3
중미8개국	84.1	66.9	80.7	98.4	105.1
라틴아메리카	870.1	666.8	842.8	1,024.0	1,069.7

자료 | Global Insight.

####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입 증가세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1년보다 크게 감소한 516억 달러 기록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382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194억 달러), 아르헨티나(158억 달러), 페루(45억 달러) 등이 이음.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 반해 중미 8개국은 366억 달러의 무역 적자 기록

###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15.5	18.6	14.3	13.3	15.8
브라질	24.8	25.3	20.2	29.8	19.4
칠레	6.1	15.4	15.6	10.5	3.4
콜롬비아	-2.9	0.0	-0.7	2.4	0.2
멕시코	-17.3	-4.7	-3.0	-1.5	0.4
페루	2.6	6.0	6.7	9.3	4.5
베네수엘라	42.6	15.7	27.6	46.1	38.2
중미8개국	-35.5	-21.7	-29.2	-34.7	-36.6
라틴아메리카	48.2	54.0	53.9	80.3	51.6

자료 | Global Insight.

::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반영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6%로 2011년보다 0.4%포인트 증가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만이 흑자를 기록

| 주요 국가 중에서는 페루(-3.6%), 칠레(-3.5%), 콜롬비아(-3.1%), 브라질(-2.4%) 등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2.1	3.6	0.8	-0.1	0.5
브라질	-1.7	-1.5	-2.2	-2.1	-2.4
칠레	-3.2	2.0	1.5	-1.3	-3.5
콜롬비아	-2.7	-2.1	-3.0	-2.8	-3.1
멕시코	-1.6	-0.6	-0.2	-0.8	-0.5
페루	-4.2	-0.6	-2.5	-1.9	-3.6
베네수엘라	10.0	0.8	4.3	7.5	3.7
중미8개국	-9.1	-2.6	-5.7	-7.0	-6.1
라틴아메리카	-0.7	-0.6	-1.2	-1.2	-1.6

자료 | Global Insight.

## 6. 정부 지출 및 재정수지

::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출구 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정부 지출 증가율은 2012년 들어 경기 상황 악화를 반영해 다시 증가세로 반전

|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부 지출 증가율은 2011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3.6% 기록  
| 나라별로는 페루(10.6%), 아르헨티나(6.5%), 베네수엘라(6.3%)에서 비교적 높은 정부 지출 증가세를 기록

주요국의 정부 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6.9	7.3	9.4	10.9	6.5
브라질	3.2	3.0	4.3	2.0	3.2
칠레	0.3	9.2	4.6	3.0	4.2
콜롬비아	3.3	5.9	5.6	3.6	5.1
멕시코	1.1	3.2	2.3	2.1	1.2
페루	2.1	16.5	10.0	4.8	10.6
베네수엘라	4.8	1.5	2.1	5.9	6.3
중미8개국	5.8	5.7	5.2	3.5	4.9
라틴아메리카	2.9	4.0	4.3	2.9	3.6

자료 | Global Insight.

:: 정부 지출 증가로 2012년 재정수지는 2011년에 비해 소폭 악화

|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는 2011년에 비해 0.4%포인트 악화된 -2.8% 기록

| 나라별로는 칠레(3.2%)와 페루(2.0%)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한 재정을 운영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11.4% 재정적자를 기록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

##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1.5	-0.6	0.2	-1.7	-2.6
브라질	-2.0	-3.3	-2.5	-2.6	-2.5
칠레	9.5	0.4	3.4	7.4	3.2
콜롬비아	-1.7	-3.7	-3.5	-2.0	-2.1
멕시코	-0.6	-2.8	-3.3	-2.8	-2.7
페루	2.4	-1.5	-0.1	1.9	2.0
베네수엘라	-3.4	-8.2	-9.3	-12.2	-11.4
중미8개국	-1.6	-3.8	-3.4	-2.8	-3.0
라틴아메리카	-1.0	-3.3	-2.4	-2.4	-2.8

자료 | Global Insight.

## 7. 실업률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실업률은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 실업률은 2011년보다 소폭 낮은 7.4% 기록

:: 나라별로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실업률이 2011년에 비해 하락

|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급속한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해 2011년 7.1%에서 7.2%로 소폭 상승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가 11.2%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7.8%), 페루(6.9%) 등이 이음.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멕시코가 가장 낮은 실업률(5.0%)을 기록

###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7.9	8.7	7.7	7.1	7.2
브라질	7.9	8.1	6.8	6.0	5.5
칠레	7.8	9.6	8.2	7.1	6.4
콜롬비아	11.5	12.9	12.5	11.5	11.2
멕시코	4.0	5.5	5.4	5.2	5.0
페루	8.4	8.4	7.9	7.7	6.9
베네수엘라	7.3	7.9	8.5	8.2	7.8
중미8개국	5.2	6.9	6.8	6.1	6.2
라틴아메리카	7.5	8.5	8.5	7.7	7.4

자료 | Global Insight.

## III. 금융·외환지표

### 1. 환율

:: 2011년과 달리 2012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은 하락세(자국 통화 가치 상승)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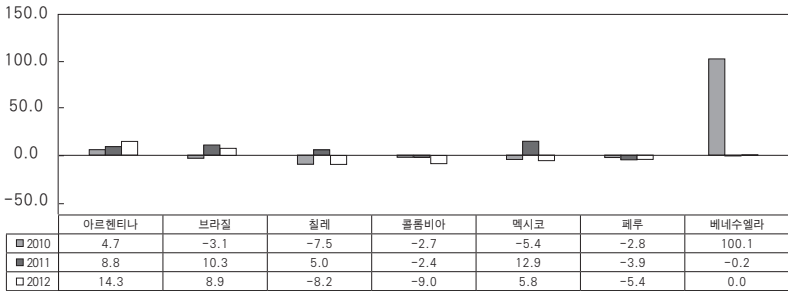
| 나라별로는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순으로 환율 하락세 현저

| 그에 반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환율은 2011년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 기록

- 특히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달러 대비) 하락은 브라질 경제의 성장 둔화, 경기 부양을 위한 팽창적 통화 및 신용 정책 등에 기인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 통화 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의미  
자료 | Global Insight.

::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반영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6%로 2011년보다 0.4%포인트 증가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만이 흑자를 기록

| 주요 국가 중에서는 페루(-3.6%), 칠레(-3.5%), 콜롬비아(-3.1%), 브라질(-2.4%) 등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3.43	3.78	3.96	4.30	4.92
브라질	2.34	1.74	1.69	1.86	2.04
칠레	629.11	506.43	468.37	491.98	478.60
콜롬비아	2,198.09	2,044.23	1,989.88	1,942.70	1,768.23
멕시코	13.54	13.06	12.36	13.95	12.97
페루	3.14	2.89	2.81	2.70	2.55
베네수엘라	2.15	2.15	4.30	4.29	4.29

자료 | 각국 중앙은행

## 2. 금리

::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

|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는 8.8%로 2011년 대비 1.1%포인트 하락  
| 나라별로는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단기금리가 각각 3.2%포인트, 1.2%포인트 하락

주요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11.0	11.6	9.2	10.7	12.0
브라질	12.4	10.1	9.8	11.7	8.5
칠레	15.2	12.9	11.8	12.4	13.5
콜롬비아	9.7	6.1	3.7	4.2	5.4
멕시코	7.7	5.4	4.4	4.2	4.2
페루	23.7	21.0	19.0	18.7	19.2
베네수엘라	22.8	20.6	18.0	17.4	16.2
중미8개국	10.9	11.1	9.5	9.3	10.0
라틴아메리카	11.8	10.1	9.0	9.9	8.8

자료 | Global Insight.

## 3. 소비자물가 상승률

:: 식품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2011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21.1%)가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  
| 인플레이션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0.0%)을 기록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인 데 반해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8.6	6.3	10.5	9.8	10.0
브라질	5.7	4.9	5.0	6.6	5.4
칠레	8.9	2.3	1.4	3.1	3.0
콜롬비아	7.0	4.2	2.3	3.4	3.2
멕시코	5.1	5.3	4.2	3.4	4.3
페루	5.8	2.9	1.5	3.4	3.7
베네수엘라	31.5	28.6	29.1	27.1	21.1
중미8개국	11.1	2.8	3.9	5.4	4.1
라틴아메리카	7.8	6.4	6.0	6.5	6.0

자료 |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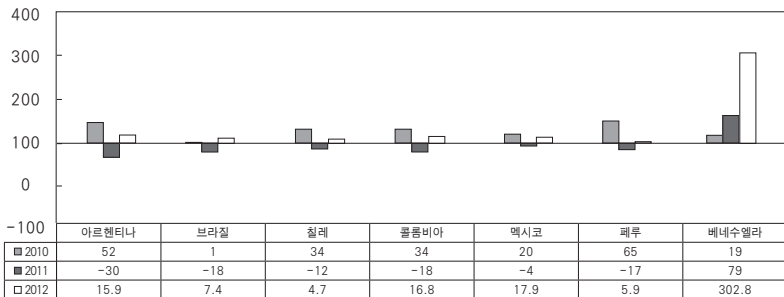
### 4. 주가

::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와 라틴아메리카 경제 성장세 둔화로 2011년 일제히 하락했던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주가는 2012년 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세로 전환

| 나라별로는 베네수엘라 주가가 전년 대비 302% 급등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멕시코(17.9%), 아르헨티나(15.9%), 콜롬비아(15.8%) 등이 그 뒤를 이음.

### 주요국의 주가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 Bloomberg.

##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1,080	2,318	3,524	2,463	2,854
브라질	37,550	68,588	69,305	56,754	60,952
칠레	11,324	16,631	22,979	20,130	21,070
콜롬비아	7,561	11,569	15,497	12,703	14,716
멕시코	22,380	32,120	38,551	37,078	43,706
페루	7,049	14,167	23,375	19,475	20,629
베네수엘라	35,090	55,081	65,338	117,036	471,437

자료 | Bloomberg.

## 5. 외환보유고

::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7,79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나라별로는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전체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 수준인 3,77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멕시코(1,656억 달러), 페루(623억 달러), 아르헨티나(453억 달러) 등이 이음.

|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는 외채 상환 등의 이유로 2011년 대비 각각 11억 달러, 40억 달러 감소

##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46,198	47,967	52,145	46,376	45,274
브라질	193,783	238,520	288,575	352,012	377,753
칠레	23,162	25,371	27,864	41,979	38,943
콜롬비아	23,672	24,992	28,464	32,303	36,402
멕시코	95,302	99,893	120,587	149,209	165,590
페루	31,233	33,175	44,150	48,859	62,212
베네수엘라	43,127	35,830	27,911	29,892	25,864
중미8개국	17,414	19,251	20,969	25,074	24,659
라틴아메리카	453,172	514,185	610,494	723,125	779,932

주 | 2012년은 10월 말 기준  
자료 | CEPAL

## 6. 국가신용등급

:: 2013년 6월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임.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 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은 세 기관 모두로부터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음.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3년 6월 기준)

발행자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멕시코	Baa1 2005. 1. 6.	Stable 2005. 1. 6.	BBB 2009. 12. 14.	Positive 2013. 3. 13.	BBB 2013. 5. 8.	Stable 2013. 5. 8.
베네수엘라	B2 2009. 1. 15.	Stable 2009. 1. 15.	B 2013. 6. 17.	Negative 2013. 6. 17.	B+ 2011. 4. 11.	Negative 2012. 4. 4.
볼리비아	Ba3 2012. 6. 7.	Stable 2012. 6. 7.	BB- 2012. 5. 18.	Stable 2012. 5. 18.	BB- 2012. 10. 2.	Stable 2012. 10. 2.
브라질	Baa2 2011. 6. 20.	Positive 2011. 6. 20.	BBB 2011. 11. 17.	Negative 2013. 6. 6.	BBB 2011. 4. 4.	Stable 2011. 4. 5.
아르헨티나	B3 2005. 6. 29.	Negative 2012. 9. 17.	B- 2012. 10. 30.	Negative 2012. 10. 30.	CC 2012. 11. 27.	Negative 2012. 11. 27.
에콰도르	Caa 2012. 9. 13.	Stable 2012. 9. 13.	B 2012. 6. 7.	Stable 2012. 6. 7.	B- 2009. 9. 4.	Positive 2012. 10. 24.
칠레	Aa3 2010. 6. 16.	Stable 2010. 6. 16.	AA- 2012. 12. 26.	Stable 2012. 12. 26.	A+ 2011. 2. 1.	Stable 2008. 11. 10.
코스타리카	Baa3 2010. 9. 9.	Stable 2010. 9. 9.	BB 2005. 6. 10.	Stable 2008. 10. 10.	BB+ 2011. 3. 4.	Stable 2000. 5. 19.
콜롬비아	Baa3 2011. 5. 31.	Stable 2011. 5. 31.	BBB 2013. 4. 24.	Stable 2013. 4. 24.	BBB- 2011. 6. 22.	Positive 2013. 3. 6.
파나마	Baa2 2012. 10. 31.	Stable 2012. 10. 31.	BBB 2012. 7. 2.	Stable 2012. 7. 2.	BBB 2011. 6. 2.	Stable 2011. 6. 2.
페루	Baa2 2012. 8. 16.	Positive 2011. 3. 21.	BBB 2011. 8. 30.	Positive 2012. 8. 28.	BBB 2011. 11. 10.	Stable 2011. 11. 10.

주 | 회색 음영은 투자 적격 등급을 의미  
자료 | Moody's, S&P, Fitch.